

경제주평

-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목 차

■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	2
3.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3
4. 시사점	6
< 참고 1. > 2021년 근로자 휴가조사	8
< 참고 2. >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종합	9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시사점

■ 개 요

지난 3월 15일 정부는 내수 진작 및 국민 여가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외수 부진으로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커지는 등 내수 부분 활력 제고가 긴요한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총수요 진작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본고는 대체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후 시사점을 제시했다.

■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

대체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 명,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활용해 1일 1인당 8만 5,830원, 소비지출 구성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의 목적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7.3%, 운송서비스 26.3%, 음식료품 11.0%로 가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를 이용해 전체 거시경제적 효과 및 경로별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다.

■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① 거시경제적 효과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4만 명으로 추정된다.

② 경로별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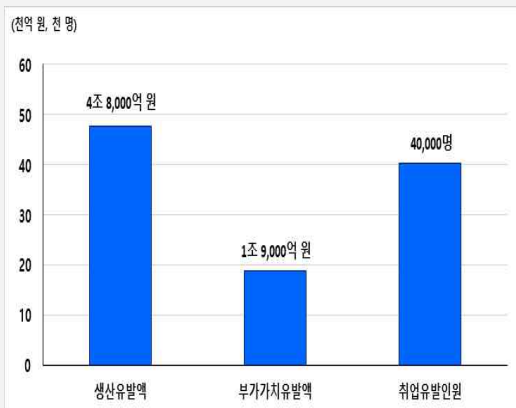
목적별 소비지출의 경로별 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9,000억 원(전체 소비지출액 중 37.3%)으로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1조 9,400억 원(총효과 대비 40.6%),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7,400억 원(동 39.4%), 취업유발인원은 약 1만 7,000명(동 42.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 운송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6,300억 원(동 26.1%)으로 이의 생산유발액은 약 1조 1,200억 원(동 23.4%),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4,200억 원(동 22.3%), 취업유발인원은 약 8,000명(동 2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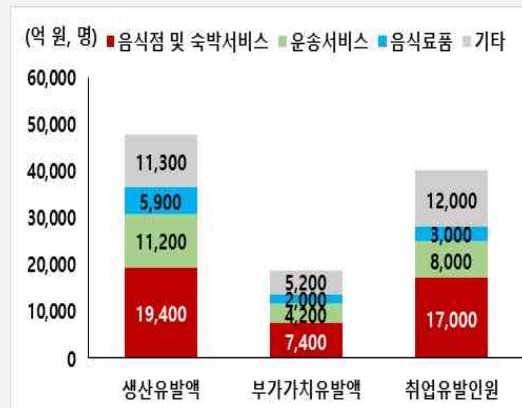
동 음식료품 소비지출액은 약 2,700억 원(11.2%)으로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5,900억 원(동 12.3%),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000억 원(10.6%), 취업유발인원은 약 3,000명(동 7.5%)으로 추산된다.

한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그 외의 파급 경로를 통해서도 약 6,100억 원(동 25.3%)의 소비지출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체공휴일 1일의 거시경제적 효과 >



< 경로별 경제적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첫째,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확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대기업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실천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내국인의 국내 여행 장려 및 지원 강화, 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대체공휴일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는 날'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정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1. 개요

- 정부는 내수 진작 및 국민 여가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
 - 대체공휴일은 2013년 제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체 공휴일(15일) 중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의 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해 적용
 - 2014년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 대상이 '공휴일인 국경일'로 확대
 - 현재 '1월 1일(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기독탄신일)' 등의 공휴일 4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
 -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여가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
 -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대한 대체공휴일 지정은 입법 예고 기간인 4월 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공포될 예정¹⁾
- 외수 부진으로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커지는 등 국내 경제의 내수 부문 활력 제고가 긴요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총수요 진작 등이 기대되는 만큼 이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대체공휴일 종류 >

구분	시행 시기	2023년 해당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일
설날	2014년~	1/21(토), 1/22(일), 1/23(월)	1/24(화)
추석		9/28(목), 9/29(금), 9/30(토)	-
어린이날		5/5(금)	-
3·1절	2021년~	3/1(수)	-
광복절		8/15(화)	-
개천절		10/3(화)	-
한글날		10/9(월)	-
부처님 오신 날	2023년~	5/27(토)	5/29(월)
성탄절		12/25(월)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1)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12.21. 및 인사혁신처,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보도자료, 2023.03.15. 참조.

2.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

○ (주요 가정)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와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비용 및 목적별 지출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대체공휴일의 총소비 규모를 추정

-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 : 2022년 평균 취업자 수는 약 2,809만 명으로 이를 대체공휴일에 영향을 받는 인구라고 가정

-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 :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활용해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 5,830원으로 가정

· '2021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일수는 평균 10.7일이며, 연차휴가 지출 비용은 평균 85만 2,620원임

· 2020년 기준 연차휴가 1일 1인당 소비지출액 7만 9,680원을 2022년 소비자물가 수준으로 환산하여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약 8만 5,830원으로 가정

- 소비지출 구성 :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의 목적을 활용하여 소비지출 구성을 추정한 결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7.3%, 운송서비스 26.3%, 음식료품 11.0% 등으로 가정

· '2021 근로자 휴가조사'의 연차휴가 목적별 지출 비용을 활용하여 산업연관표의 상품분류 기준으로 소비지출 구성 계산

· 소비지출 구성은 음식료품(11.0%), 운송서비스(26.3%),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37.3%), 기타(25.4%)로 가정²⁾

○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와 소비지출 구성비를 활용하여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

- 2019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상의 산업연관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소비지출 구성비를 활용하여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의 파급효과를 산출

2) 기타에는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이 포함.

3.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³⁾

① 거시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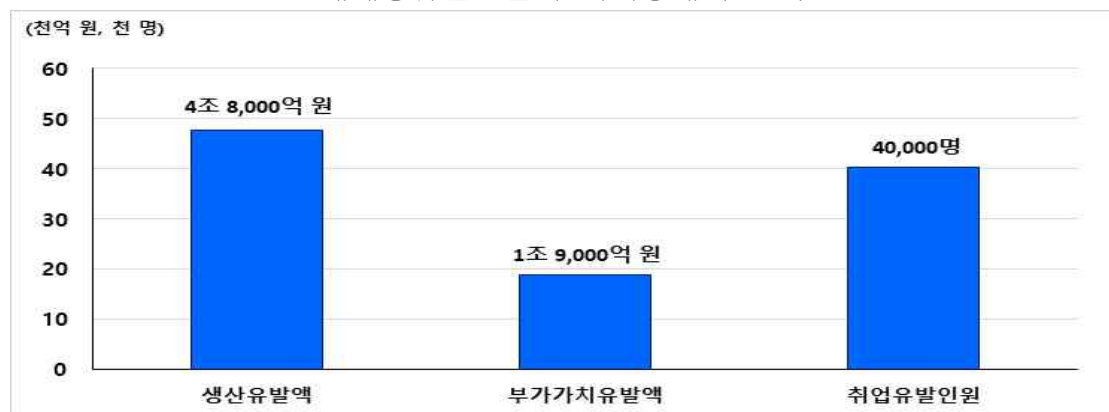
○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은 약 2조 4,000억 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약 4조 8,000억 원 등의 영향을 미침

-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
 -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 =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 ×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 = 2,809만 명 × 8만 5,830원
-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을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4만 명으로 추정
 -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4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 경로별로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료품을 통한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체공휴일 1일의 거시경제적 효과 산출식 >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 × 생산유발계수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유발액	=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 × 부가가치유발계수
경제 전체의 취업유발인원	=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 × 취업유발계수

< 대체공휴일 1일의 거시경제적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추정 결과는 반올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액 및 비중이 실제 분석에 사용된 가정 및 결과 값과 다를 수 있음. 거시경제적 효과는 각 주요 부문별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원을 합산.

② 경로별 경제적 효과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파급 경로 중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

-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9,000억 원으로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1조 9,400억 원으로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의 40.6%를 차지
 - 부가가치유발액은 경제 전체 부가가치유발액의 39.4%인 약 7,400억 원
 - 특히, 취업유발인원은 경제 전체 취업유발인원의 42.5%인 약 1만 7,000명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원
1조 9,400억 원	7,400억 원	1만 7,000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운송서비스) 운송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운송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6,300억 원으로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운송서비스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1조 1,200억 원으로 이는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의 23.4% 수준
 - 부가가치유발액은 경제 전체 부가가치유발액의 22.3%인 약 4,200억 원으로 소비지출액 대비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작음
 - 또한, 취업유발인원은 약 8,000명으로 이는 경제 전체 취업유발인원의 20.0%에 해당되며, 소비지출액 대비 취업유발효과가 작음

< 운송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원
1조 1,200억 원	4,200억 원	8,000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음식료품) 음식료품은 경제 전체에 세 번째로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파급 경로인 것으로 나타남

-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음식료품 소비지출액은 약 2,700억 원으로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음식료품을 통한 생산유발액은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의 12.3%인 약 5,900억 원으로 소비지출액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큼
 -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000억 원으로 이는 경제 전체 부가가치유발액의 10.6% 수준
 - 취업유발인원은 약 3,000명으로 경제 전체 취업유발인원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식료품을 통한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원
5,900억 원	2,000억 원	3,000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기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그 외의 파급 경로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기타 소비지출액은 약 6,100억 원으로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기타 파급 경로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1조 1,300억 원으로 이는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의 23.6%에 해당되며, 소비지출액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작음
 -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5,200억 원으로 경제 전체 부가가치유발액의 27.7% 수준이며, 소비지출액 대비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큼
 - 취업유발인원은 경제 전체 취업유발인원의 30.0%인 약 1만 2,000명

< 기타 파급 경로를 통한 경제적 효과 >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인원
1조 1,300억 원	5,200억 원	1만 2,000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첫째,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악화와 소비 위축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수 확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며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

- 글로벌 교역 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국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의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 진작을 통한 추가적인 경기 둔화 예방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영세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휴일 임금 상승, 생산 손실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대체공휴일 확대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대기업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내국인의 국내 여행 장려 및 지원 강화, 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 '2021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대부분(62.9%)은 여행 및 휴식을 위해 연차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공휴일 제도를 통한 휴일 증가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 다만, 대체공휴일 제도를 활용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음

- 특히, 올해는 주요국의 코로나 방역상황이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해외여행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 여행지의 개발과 숙박 및 교통 비용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더군다나, 고물가 현상으로 인한 여행지 불공정거래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임

셋째, 대체공휴일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는 날’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 활동 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정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은 임시공휴일과 달리 향후 공휴일 수 확대에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휴일의 가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 제도는 요일 지정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안정성이 떨어지고,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대체공휴일로 보장 받는 영국 등에 비해 휴일의 절대적인 일수도 부족한 상황
- 이에 정부는 휴일이 미래 생산성 제고 등 장기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휴일의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은 휴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 **HRI**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참고 1. > 2021 근로자 휴가조사

- 근로자 휴가조사

- 개념 : 국내 17개 시·도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휴가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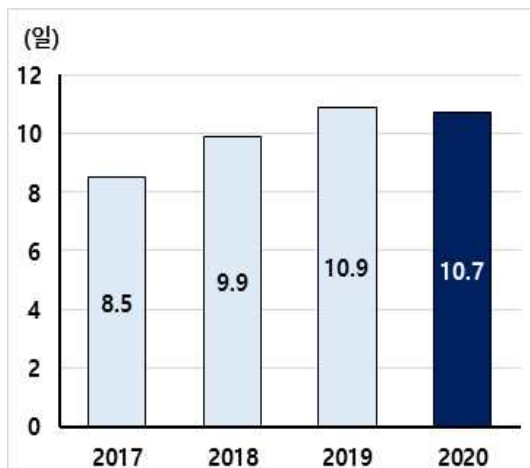
- 2021 근로자 휴가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상용근로자가 5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 1,856개 및 상용근로자 5,265명
- 조사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2021 근로자 휴가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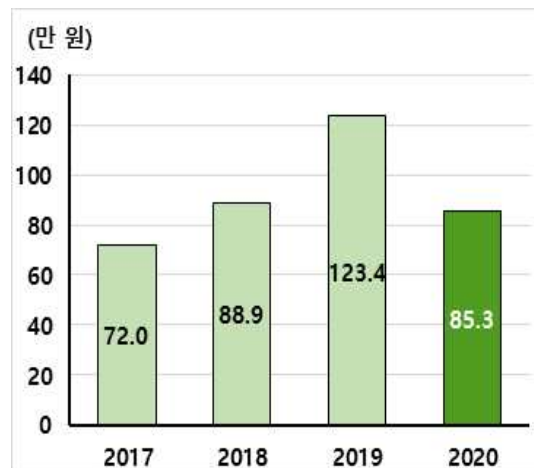
- 연차휴가 사용 일수 : 근로자에게 부여된 14.9일의 연차휴가 중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는 10.7일
- 연차휴가 사용 목적 : 근로자의 과반수(62.9%)는 여행 및 휴식을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
- 연차휴가 지출 비용 : 2020년 한 해 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 시 지출한 비용은 85.3만 원

< 연도별 연차휴가 사용 일수 >



자료 : 통계청.

< 연도별 연차휴가 지출 비용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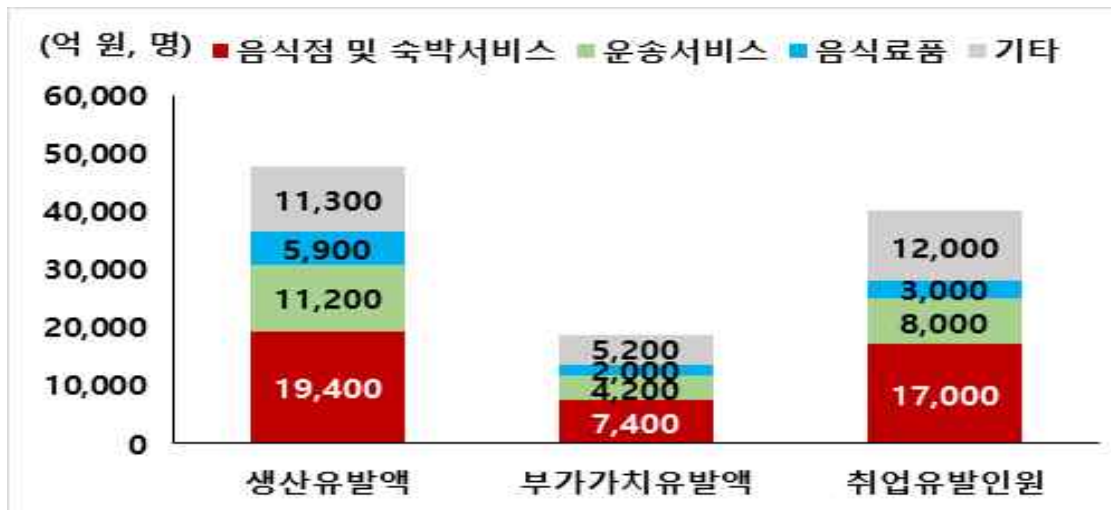
< 참고 2. >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종합

< 소비지출 경로 및 파급효과 종합 >

구분	소비지출 규모 (억 원)	생산유발액 (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억 원)	취업유발인원 (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9,000 (37.3%)	19,400 (40.6%)	7,400 (39.4%)	17,000 (42.5%)
운송서비스	6,300 (26.1%)	11,200 (23.4%)	4,200 (22.3%)	8,000 (20.0%)
음식료품	2,700 (11.2%)	5,900 (12.3%)	2,000 (10.6%)	3,000 (7.5%)
기타	6,100 (25.3%)	11,300 (23.6%)	5,200 (27.7%)	12,000 (30.0%)
계	24,100 (100.0%)	47,800 (100.0%)	18,800 (100.0%)	40,000 (10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대체공휴일 1일의 경로별 경제적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